

에디터의 기획력과
시의성 있는 관점

처음부터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면 한숨만 나오는데 부딪혀 보고 어렵더라도 해내면 뿌듯하고 마음이 가벼움을 이 책을 읽고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잡지 춘추시대에 살면서 보도 자료를 베낀 것 같은 소개 글이야 많고도 많지만, 에디터의 기획력과 필자의 시의성 있는 관점이 살아 있는 칼럼들은 손에서 놓질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특히 '희생과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그리움은 헛된 이상에 지나지 않을' 거란 말에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민주화를 욕망했었지만 지금은 정립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시점에 『희망세상』이 앞장 서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사, 광다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희망세상』

정말 우연한 기회에 『희망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책 하단에 조그맣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제목만으로 무슨 책인지도 감을 잡기 힘든.....

3월호에 나의 관심을 끌었던 기사는 <시대의 불꽃>

윤영규 선생님에 관한 글이다.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하고 공부하며 배고픔에 눈물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스승, 가족들에게 당당하고 타협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 윤영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유신’, ‘긴급조치’, ‘계엄군’, ‘5·18민중항쟁’

그 분의 삶에서 읽을 수 있는 암울하고 힘들었던 시대상을 보여주는 슬픈 단어들, 그분이 살아온 인생의 험난함을 요약하는 단어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그분의 소신과 신념을 감동 깊게 느낄 수 있는 기사였다.

다시 나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이달의 이슈> ‘한일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였다. 제때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으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친일파들이 버젓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의 장본인이 야당의 총수가 되는 나라. 때에 맞는 적절한 기사로 인해서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직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기회에 민주화된 자랑스런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희망세상』이란 책을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는 작은 숙제가 나에게 남겨졌다.

(공무원, 황유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8 팩 스 : 02-3709-7530 이메일 : stonesok@kdemo.or.kr